대한산업보건협회는 7월 20일, 서초구 방배동 소재 누리시아웨딩홀에서 온라인 임시총회를 열었다. 총 585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총회에서는 강성규 부회장이 선출되었다. 이날 임시총회는 코로나바이러스의 기세가 쉽게 꺾이지 않아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된 만큼 임직원들의 지원과 협조로 원활하게 마칠 수 있었다.

글 편집실 **사진** 김재이

1

대한산업보건협회 2021년 온라인 임시총회 개최

꺾이지 않는 코로나에 새로운 시도 펼쳐

2021년 임시총회는 협회 역사에 있어 처음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코로나바이러스가 4차 대유행을 넘어 매일 신규 확진의 숫자가 갱신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도로 온라인 총회를 선택한 것이다. 온라인 총회가 처음인 만큼 협회는 임직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어 사전 공유했고 총 16명으로 구성된 8개의 지원팀을 꾸려 온라인으로 입장한 회원들의 원활한 참여를 이끌었다.

이날 2021년 임시총회 개표 결과, 강성규 부회장이 재선출되었다. 이로써 강성규 부회장은 오는 2021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3년 간 부회장의 직무를 다시 수행한다.
강성규 부회장은 "협회의 첫 온라인 총회에서 부회장으로 당선되어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며 "임직원들의 뜻을 받들고 헤아려 협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백헌기 회장의 폐회사와 함께 임시총회는 성황리에 끝이 났다.

2

3

4

5

6

1 온라인 투표를 위해 선거인명부를 작성 중인 지원팀(협회 직원)

2 임시총회를 진행하는 백헌기 회장

3 이상태 경영총괄이사의 임직원 추천 경과보고

4 안건 의결을 선언하는 백헌기 회장

5 총회 안건을 살펴보는 사내외 이사들

6 (왼쪽부터) 이영종 경영기획본부장, 이상태 경영총괄 이사, 이청원 노동조합부위원장, 백헌기 회장, 김치년 사외이사, 김홍갑 사업총괄이사, 배정석 상임감사